



LEARN & ACT 교사 가이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목차

들어가며	1
1. 교육이란	2
2. 글로벌 교육 현황	3
3. 교육 기회 박탈의 원인	5
4. 인류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목표	7
5. 교육에 관한 가장 중요한 목표들	8
6. 인류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9
7. 코로나19와 양질의 교육	11
8. 양질의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하여	12

도입 1 : 말랄라 유사프자이 이야기



▶ p.03

● 목숨을 걸고 지킨, 이슬람 소녀의 교육받을 권리

1997년 파키스탄에서 태어난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교육 운동가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말랄라가 11살이던 2009년, 탈레반(아프간의 반군 테러 조직)은 말랄라가 살던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을 점령했고 여성차별적인 이슬람 율법을 내세우며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추방했다. 이에 말랄라는 여학생의 평등한 교육권을 호소하는 글을 블로그에 기고하였고, 전 세계는 그녀의 활약에 주목했다. 14세이던 2012년 그녀는 하교 중 탈레반에게 집중 사격을 당해 쓰러졌다.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회복한 말랄라는 이후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싸우는 인권운동가가 되었다. 목숨을 건 그녀의 노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으며, 2014년에는 역대 최연소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되었다. 그녀는 2017년부터 전 세계 여성과 아동의 인권 및 교육권을 위한 유엔 평화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 말랄라가 전하는 메시지

탈레반의 총격에도 굽하지 않고 아동의 교육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말랄라 유사프자이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전 세계 아동들에게 ‘교육’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책과 펜을 듭시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한 명의 아이, 한 명의 선생님, 한 권의 책, 한 개의 펜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UN 연설문 중-

▶ 교육은 아동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기근과 빈곤에 대항할 수 있게 해주며, 질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돋는다. 특히 빈곤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 경제활동과 가사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청소년과 성인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

도입 2 : 글로벌 교육 격차를 보여주는 지도



▶ p.04

● 2018년 기준 전 세계 교육 격차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다 (출처: 유네스코)

지도를 보며 아래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 주로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절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나요?
- 다른 지역에 비해 절은 색으로 표시된 지역의 아동·청소년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요?
- 만약 여러분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1.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01.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SUNHAK PEACE PRIZE

| 교육이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 교육을 통한 가능성 :

- 자신의 역량의 최대치를 발휘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국가는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확대될수록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 국가의 사회·경제적 역량도 강화될 수 있다.

인류 모두의 교육받을 권리, 'UN아동권리협약'

제28조 '교출받을 권리'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아동은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원하는 경우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학교는 아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29조 '교육의 목적'

아동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고, 인권, 자유, 모든 문화와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05

▶ p.05

● 교육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그에 따른 방법, 수단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간은 태어난 성품과 자질을 바탕으로 교육을 받음으로써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다.

● 교육을 통한 가능성

교육은 가능한 이들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다. 나아가 교육을 통해 자기 역량의 최대치를 발휘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국가는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즉,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확대될수록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됨은 물론 국가의 사회·경제적 역량도 강화될 수 있다.

● 인류 모두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인류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 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UN 아동 권리 협약’은 18세 미만의 전 세계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으로 제28조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제29조에서 ‘교육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 ▶ 제28조 :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아동은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원하는 경우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학교는 아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 제29조 : 아동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고, 인권, 자유, 모든 문화와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2. 글로벌 교육 현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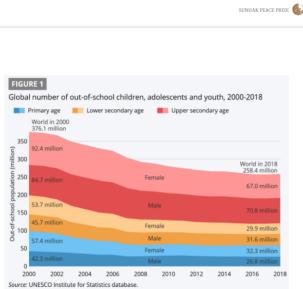
02. 글로벌 교육 현황 (1)

|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

전 세계
2억 6천만 명

전 세계 학령기 아동(6~17세)의
1/5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교육 위기



06

▶ p.06

●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

유네스코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 세계 약 2억 6천만 명의 아동·청소년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주원인은 가난과 차별이다. 이는 전 세계 학령 아동 인구(6세~17세)의 1/5로,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태평양 연안 지역의 아이들이다.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교육 위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모든 연령대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취학률을 보인다. 6세~11세의 어린이 1/5 이상이 학교를 그만두었고, 12세~14세 청소년의 1/3도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유네스코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15세~17세 청소년들 약 60%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특히 예멘에서는 80%의 소녀들이 학교에 갈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2. 글로벌 교육 현황(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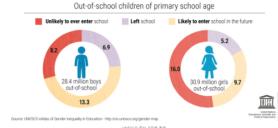
02. 글로벌 교육 현황 (2)

| 교육에서 더 소외된 소녀들

- 학교 교육 못 받는 아동의 성별 격차 -



TWICE AS MANY GIRLS AS BOYS WILL NEVER START SCHOOL.



| 전 세계 문맹의 2/3은 여성

문맹은 더 나은 삶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 원인은 남아선호사상

▶ p.07

● 교육에서 더 소외된 소녀들

2016년 유네스코가 발간한 ‘교육에서의 성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초등교육 진학 연령대의 남자 아동 2,800만 명 중 8.2%가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으며, 여자 아동 3,000만 명 중 16%가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다. 즉, 남자 아동들과 비교하여 2배 넘는 여자 아동들이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구촌 특정 지역에서 남아선호사상이 소녀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교육|의 양성평등 유네스코 UIS (unesco.org)

● 전 세계 문맹의 2/3은 여성

남녀 교육 격차도 심각하다. 유네스코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약 7억 6천만 명의 성인들이 문맹인데, 그중 2/3가 여성이다.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초 소양이므로, 여성 문맹자들은 좋은 직업을 갖기가 어렵고 지속적인 가난에 시달리게 된다. 문맹 여성들은 결혼 이후 자녀들의 교육에도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2. 글로벌 교육 현황(3)

02. 글로벌 교육 현황 (3) |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교육 격차

1. 초등교육 못 받는 비율

저개발국가

19%

VS

선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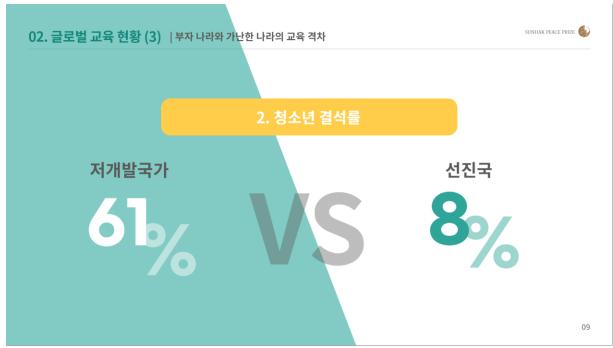
2%

08

▶ p.08

●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엄청난 교육 격차

유네스코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6세~11세) 중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은 저개발국가가 19%지만, 선진국은 단 2%다.



▶ p.09

또한 저개발국가의 15세~17세 청소년 약 61%가 학교에 결석하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8%만이 학교에 결석한다. 이러한 교육 격차는 청소년, 성인이 된 이후에도 꾸준히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 격차로 이어진다.

3. 교육 기회 박탈의 원인(1)



▶ p.10

● 국제 분쟁

전 세계 ‘초등학교를 못 다니는 아동 2명 중 1명’은 국제 분쟁 지역에 살고 있다. 유니세프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분쟁 지역에 사는 4,850만 명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결석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확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30% 낮으며, 중등학교를 졸업할 확률은 50%에 불과하다.

● 아동 노동

2018년 기준 전 세계 5세~17세 어린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명 이상이 아동 노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아동 노동은 어린이들의 교육 기회를 축소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성장을 방해한다. 국제노동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 노동자 중 7,300만 명은 광산, 들판, 공장 등의 일터에서 무거운 짐을 운반하고 각종 화학 성분에 노출된 채 위험을 감수하며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 조혼

2000년대 이후 국제사회의 조혼 반대 움직임에 힘입어 많은 나라에서 아동 결혼이 금지되는 등 큰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 소녀들의 강제 결혼이 행해진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는 약 1,200만 명의 소녀들이 18세가 되기 이전에 결혼하고 있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소녀의 38%가 원치 않는 강제 결혼을 당하고 있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니제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에서는 조혼의 비율이 70%에 이른다.

● 기후 변화

매년 약 3,700만 명의 어린이들이 기후 변화의 위협으로 인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홍수, 태풍 같은 기상 현상이 증가하며 학교 시설은 직접적 피해를 보거나 유사시 대피소로 활용되고, 이는 곧 교육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진다. 2017년 남아시아에서는 최악의 홍수가 발생한 이후 1만 8,000개의 학교가 문을 닫기도 하였다. 더불어 기상 이변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 대신 일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유튜브 영상 활용, ‘아동 노동 근절하기’: <https://youtu.be/ckz4qccSVpY> (p.11)

3. 교육 기회 박탈의 원인(2)

03. 교육 기회 박탈의 원인 (2)



12

▶ p.12

● 교사 부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는 심각한 교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취학 연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을 책임질 교사 양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사 양성 시스템이 부족하고, 교사의 급여와 처우가 낮기 때문이다.

● 열악한 교육 환경

대다수 저개발국가에서는 국가의 재정 부족으로 ‘교육’에 할당된 예산이 부족하므로 보편적 초등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학교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학습자료 제공이 원활하지 못하며, 무엇보다 교사가 부족하여 학급 당 학생 수가 넘쳐나게 되면서 교육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

● 외진 지역이 갖는 물리적 한계

산간 지역, 섬 지역 등 교육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외진 지역에 사는 아동·청소년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특히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며 오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수 민족, 토착 원주민들의 경우 보편적 초등 교육과정에 편입되지 못한 채 교육 시스템의 주변부를 맴돌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4. 인류의 교육받을 권리위한 국제사회의 목표

04. 인류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목표

SUNHAK PEACE PRIZE



13

▶ p.13

● UN의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 중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2015년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이다. 이 중 4번째 목표는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으로, 세부적으로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추구하고 있다.

04. 인류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목표

SUNHAK PEACE PRIZE

| SDGs 4 세부 목표

- 4.1 2030년까지 모든 소년, 소녀들이 효과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양질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무료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 4.2 모든 소년, 소녀들이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게 영유아 발달, 유치원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4.3 대학을 포함한 저렴하고 질 좋은 기술, 직업 및 3차 교육에 모든 남녀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4.4 기술 및 직업 기술, 고용, 양질의 직업·기업적 기술을 위한 직업 기술을 포함하여 관련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성인의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한다.
- 4.5 교육에서의 젠더 불평등을 종식하고, 장애인 등 취약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직업 훈련과 교육으로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4.6 모든 청소년과 남녀를 불문한 상당수의 성인이 읽고 쓰는 능력과 산술 능력을 갖도록 한다.
- 4.7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속 가능한 생활 모습, 인권, 성 평등,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문화 안착, 세계시민의식, 문화 다양성에 대한 공감 등을 교육해서 모든 학습자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14

▶ p.14

● SDGs 4 세부 목표

- 4.1. 2030년까지 모든 소년, 소녀들이 효과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양질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무료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 4.2 2030년까지 모든 소년, 소녀들이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게 영유아 발달, 유치원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4.3 2030년까지 대학을 포함한 저렴하고 질 좋은 기술, 직업 및 3차 교육에 모든 남녀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4.4 2030년까지 기술 및 직업 기술, 고용, 양질의 직업·기업적기술을 위한 직업 기술을 포함하여 관련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성인의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한다.
-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젠더 불평등을 종식하고, 장애인 등 취약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직업 훈련과 교육으로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남녀를 불문한 상당수의 성인이 읽고 쓰는 능력과 산술 능력을 갖도록 한다.
- 4.7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속 가능한 생활 모습, 인권, 성 평등,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문화 안착, 세계시민의식, 문화 다양성에 대한 공감 등을 교육해서 모든 학습자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유튜브 영상 활용, ‘왜 양질의 교육이 중요한가?’: <https://youtu.be/sJ5ism5VCvM> (p.15)

5. 교육에 관한 가장 중요한 목표들(1)

05. 교육에 관한 가장 중요한 목표들 (1)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여성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SUNHAK PEACE PRIZE

16

▶ p.16

●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

아동들은 6세~12세에 이루어지는 초등교육을 통해 삶을 잘 이끌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태도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 특히 저개발국가의 아동들은 초등교육 기관에서 위생적인 생활에 대해 배우고, 예방접종 등 기초적인 건강관리를 받으며, 성장에 필요한 영양도 공급받을 수 있다. 전 세계 모든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초등교육이 꼭 제공되어야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충분한 교사의 수, 양질의 학습자료 등의 물적·인적자원 공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 여성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

현재 전 세계 약 1억 3천만 명의 소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 만연한 조혼과 남아선호 사상이 소녀들의 교육을 방해하고 있다. 교육받지 못한 여성은 이후의 삶에서 빈곤과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가부장제 사회에서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받기도 한다.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더 많이 교육 받은 여성들이 미래에 더 건강하고, 더 적은 자녀를 양육하며, 더 나중에 결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물론, 공식적인 노동시장에서도 더 두각을 드러낸다’라고 한다. 여성 교육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성의 교육 기회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5. 교육에 관한 가장 중요한 목표들(2)

05. 교육에 관한 가장 중요한 목표들 (2)

SUNHAK PEACE PRIZE



전문성 갖춘 ‘교사 양성’



양질의 ‘교육 인프라 구축’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17

▶ p.17

● 전문성 갖춘 ‘교사 양성’ :

전 세계 보편 초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500만 명에 가까운 초등 교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여건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 기관의 확충’,

‘원격 교육을 통한 교사 양성과 훈련’은 물론 ‘교사들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양질의 ‘교육 기반 구축’ :

저개발국가의 교육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 깨끗한 물과 영양가 넘치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교과서와 학습 도구를 지원하는 것, 교육 효과를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기기와 장비,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세계 시민교육’ :

21세기의 인류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21세기의 교육 내용은 ‘세계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는 세계 시민의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6. 인류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 국제기구)

06. 인류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SUNHAK PEACE PRIZE

| 1. 국제기구

1) 세계 교육 포럼

(World Education Forum, WEF)

: 세계 교육 대표들이 모여 글로벌 교육에 대해 논의하는 장



2) 국제교육계획연구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 IIEP)

: 저개발국가의 교육 정책을 설계하고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

18

▶ p.18

●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WEF) :

유네스코가 주최하는 교육 분야 최대의 국제회의로, 전 세계 교육 대표들이 모여 글로벌 교육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다. 세계교육포럼은 ‘교육을 통한 삶의 변화’라는 슬로건 아래, “건전하고 포용적인 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오로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대한민국의 인천에서 세계교육포럼이 열렸는데, 포럼의 결과는 SDGs 4.로 계승되었다.

● 국제교육계획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 IIEP) :

국제교육계획연구소는 지구촌 교육 정책 계획 및 관리를 지원하는 유네스코 산하 단체로 지난 1963년 설립되었다. 50년 이상의 연구 및 활동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개발국가의 교육 정책을 설계하고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교육계획연구소는 교육 불평등(특히 성 불평등)의 개선, 학습 결과에 관한 목표 달성, 탄력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 교육 자본의 배분, 교육에 관한 포용성, 공정성, 공공 책임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이다. <http://www.iiep.unesco.org/en>

6. 인류의 교육받을 권리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2. 단체, NGO)



▶ p.19

● ‘교육은 기본 인권’, 글로벌교육캠페인(Global Education Campaign, GEC) :

글로벌 교육 캠페인은 ‘교육을 기본 인권’으로 장려하는 시민사회단체다. 이 단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질 좋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과 옹호 활동을 펴고 있다. 특히 저개발국가 정부가 공교육을 의무화하여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https://campaignforeducation.org/>

● 빈곤한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대출해주는 사회적 기업 Kiva :

키바는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수수료와 이자가 없는 자선 대출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특히 키바는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데 주목하여, 전 세계 가난한 학생들의 교육비 대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https://www.kiva.org>

6. 인류의 교육받을 권리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3. 다양한 아이디어)



▶ p.20

●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전자 교과서, 투소메 :

투소메는 아프리카 저개발국 아이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개발한 전자 교과서이다. 전자책과 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케냐와 탄자니아에 많이 보급되어 있다. 케냐에서는 약 340만 명의 어린이들이 투소메를 사용해 말하기와 듣기, 쓰기와 읽기를 익히고 있다. 투소메 운영 첫해에 분당 30단어를 읽을 수 있는 2학년 학생 비율이 전체의 2/3 정도로 늘어났다.

● 태블릿으로 배우는 양질의 교육, ‘인스턴트 스쿨’ :

보다폰 재단(Vodafone Foundation)은 데이터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특수 태블릿을 만들어 아프리카 저개발국가에 배포하는 비영리 단체다. 보다폰 재단은 2017년 콩고민주공화국, 가나, 레소토, 모잠비크 및 탄자니아에서 온라인 교육시스템인 ‘Instant Schools For Africa’를 시작하였다. 2021년 기준 인스턴트 스쿨 및 e-스쿨 플랫폼을 사용하는 아프리카 학생들은 170만 명 이상에 달한다. 보다폰 재단 (vodafone.com)

7. 코로나19와 양질의 교육



▶ p.21

● 코로나19와 글로벌 교육 위기 :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휴교 조치는 전 세계 94% 이상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약 16억 명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이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었고, 기본적인 영양 섭취를 학교급식에 의존하던 3억 7천만 명의 어린이들은 굶주림을 겪게 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임시 휴교로 인한 학습 결손을 메우기 위해 원격 학습을 적용했지만, 저개발국과 취약 계층 아이들은 원격 학습 접근이 어려워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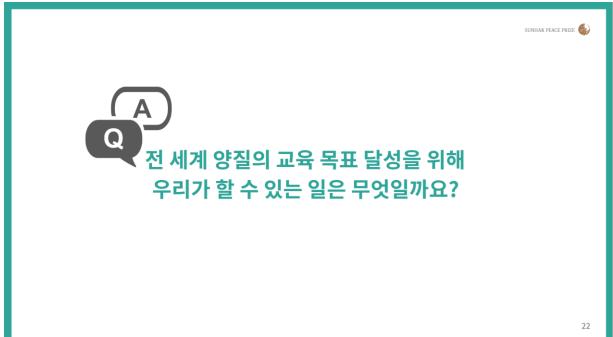
● 전 세계 100명 중 63명은 교육 빈곤 :

코로나19 이전부터 저소득국 및 중소득국의 아동 100명 중 9명은 학교 수업을 아예 받지 못했고, 44명은 교육의 빈곤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여파로 100명 중 10명이 추가로 교육 빈곤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즉, 현재 전 세계 아동 100명 중 63명은 교육 빈곤 상태다.

●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교육 시스템 혁신’이 열쇠 :

팬데믹 이후의 글로벌 교육 계획은 코로나19로 더 취약한 상태에 놓인 저개발국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과 난민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20년 8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더욱 벌어진 글로벌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육 기술 혁신을 통한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디지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한 바 있다.

8. 전 세계적 양질의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브레인스토밍)



► p.22

- ▶ SDGs 4번의 목표들을 찾아보도록 유도한다. 도움을 주고 싶은 자원단체를 찾아보도록 유도한다.
- ▶ 예: 여러분들이 썼던 헌책들을 기부해 봐요.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누군가에게 중고 책을 기부하는 것입니다.